



“환경행정 선진화에 주력”

이 만 의
환경부장관

친애하는 환경·기상가족 여러분!

오늘 제19대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받은 이만의입니다.

여러분들과 헤어진 지 5년만에 다시 환경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 단순 사후오염처리 위주 행정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목표로 다양한 생활환경 개선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수많은 정책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환경 행정의 수준이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기후산업·물산업 등 환경관련 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환경 행정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등 에너지, 자원위기에 대응하여 자국의 앞선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배타적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응방향조차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 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범정부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정비하면서 향후 전개될 포스트-교토 협상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아토피, 천식, 새집증후군 등 각종 환경질환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실내공기질관리 등 환경위해 요인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환경과 경제가 상충관계(trade-off)라는 전통적 인식에서 탈피하여 환경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고 내륙과 연안을 잇는 자연생태 공간 창출, 자원절약을 넘어선 자원순환사회 건설 등 국민들의 고품격 환경욕구 충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친애하는 환경·기상가족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전문적 역량과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으로 무장하고, 합리적 이성과 토론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에 기반한 환경행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환경현장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행정을 위한 행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환경의 가치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나친 규제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관행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합시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한 식구가 된 기상청과의 융화와 협력에 여러분 모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다소 서먹서먹할 수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환경행정과 기상행정의 선진화를 향한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08.3.11

환경부장관 이 만 의